[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국내(局內)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애의 표정에서였다. 여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휭 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제법 나붓이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띄운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극히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에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쩌면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살그머니 좀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 "그려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퍽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댔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지요. 독자들이 이형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중략 줄거리]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는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찾아가 차 한잔 마시자고 권하며 만화 연재를 부탁한다. 그러나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돈을 쓰지 않는 사장을 핑계로 부탁을 거절하고 찻값을 먼저 계산한다. 그는 만화가인 김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A]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뒈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선생님?" 그는 김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 자, '아톰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 김승옥, 「차나 한잔」 –

2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그'의 만화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② ㉡: 자신의 해고를 짐작하며 '문화부장'에게 말하고 있다.
③ ㉢: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 기다리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해고당한 '그'를 위로하고 있다.
⑤ ⓜ: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7.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해고 상황을 국장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② ⓑ는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말하며 '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③ ⓑ는 ⓐ와 달리 '그'에게 먼저 차를 마시자고 권한다.
④ ⓐ와 ⓑ는 모두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절한다.
⑤ ⓐ와의 만남과 ⓑ와의 만남은 모두 '그'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만화가가 겪는 하루의 사건을 통해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비애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만화가는 만화를 충실히 연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 모순 형용 등을 활용한다. 또한 자신이 그리는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① '그'가 '계집애'의 표정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통해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② '그'가 자신의 해고를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해고한 신문사로부터 다시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를 당한 '그'의 비참한 심리를 모순 형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정답: 25.③ 26.③ 27.⑤ 28.③

◆ 05년 10월 고3 15~19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아침 나절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사에서 문화부장에게 속히우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은 먼저 '오늘 치 만화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 치 만화……'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리라. 또는 '오늘부터는 그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 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 치의 만화를 보아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 ㉠ 그는 갑자기 꽥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을 눌러 가면서 그는 느릿느릿 걸었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다. 집에 전화가 있다면 아내를 불러내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거리를 쏘다닌다면 좋겠다.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래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얼른 생각난 사람이 엊저녁에 술을 사주던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리에 있었다.

"김 선생님, 결국 목잘렸습니다."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었다.

"제기랄, 또 한잔 할까?"

"그럽시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지금 가죠."

"오게. 제기랄, ⓐ 한잔 하세."

수화기를 놓고 나올 때 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이 따라 주는 술을 빨리빨리 마셨다.

"좀 천천히 마시게."

김 선생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싱긋 웃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그 단순하면서도 회화적(繪畵的)인 선이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야."

김 선생은 술잔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계로 그린 것 같은 양키들의 만화가 진짜인 줄로 알고 있거든."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쥐뿔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

그는 또 술을 들이켰다. 김 선생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예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 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야……."

"허, 또 나오시는군."

"허,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뒈져 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秋波)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 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나) 미안하다, '아톰×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

15. <보기>에 근거할 때, 위 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 했던 바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의 작품들은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거대 변화의 징후들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주로 꼼꼼하고 정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의 사람살이이다.

① 이촌 향도로 인한 도시 집중화를 배경으로 하여 욕망 실현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탐색한다.
② 계약적인 이익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의 조건과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을 조명한다.
③ 근대 도시의 공간과 시간을 감금과 구속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 탈출 의지와 열망을 모색한다.
④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도시 노동자,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집중한다.
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삶의 붕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삶의 타락상이나 병리 현상에 주목한다.

16. 'ⓐ 한잔 하세'와 'ⓑ 차나 한잔 하자'를 중심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는 ⓐ와는 달리 진정성이 결여된 우회적 어법이다.
② ⓐ는 위안을 주고, ⓑ는 모욕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③ '술'과 '차'는 각각 인간관계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④ ⓐ와 ⓑ가 공존하는 시대상을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⑤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의 측면에서 '술집'과 '다방'이 대조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그'가 신문사에서 해고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예술에 대한 '김 선생'과 '그'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 있다.
③ '김 선생'의 위로에 대해 '그'는 자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④ 독자들의 그릇된 취향에 대한 '김 선생'의 한탄을 엿볼 수 있다.
⑤ '그'는 생존의 측면에서 정신 노동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18. (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3점]

①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 포로가 되어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아톰×군'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의 자화상으로 보여.
②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다음 호에 계속'에서 보듯이 '그'는 독자의 얄팍한 흥미에 영합해야만 하는 이 시대 예술가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③ '술을 찍어서 아톰×군을 지운다'는 것에서 타의에 의해 더 이상 만화를 연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의 비애가 느껴져.
④ '그'는 아톰×군이 '적진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 소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⑤ '아톰×군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기를 바라는 데서 '그'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1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같은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은?

① 이미 가버린 그날과 /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무른 / 이 아쉬운 자리에는 /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 익어간다.
– 김춘수, 『능금』 –

②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을 / 끝까지 사절하다가 /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

③ 비가 온다, 비가 와도 / 강은 젖지 않는다. 오늘도 /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 비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 오규원, 『비가 와도 젖는 자는』 –

④ 또다시 어리석은 시간이 온다, 김은 갑자기 눈을 뜬다, 갑자기 그가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 모든 것이 엉망이다, 예정된 모든 무너짐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 김은 얼굴이 이그러진다
– 기형도, 『오후 4시의 희망』 –

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 목마는 하늘에 있고 /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 가을 바람 소리는 /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 박인환, 『목마와 숙녀』 –

- 정답: 15.② 16.④ 17.② 18.⑤ 19.④

◆ 19년 3월 고3 27~29번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간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 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 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 문이 아니라 은행 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덴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죠.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쫄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다음 제이선에서 그 쫄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쇠창살 밑의 쫄자들 처지임이 뻔하지요.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 아닙니까.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 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런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손 박사는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여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줄거리]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A]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꾀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꾐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

2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② ㉠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②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이겠군.
③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④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엿볼 수 있겠군.

- 정답: 27.⑤ 28.⑤ 29.④

◆ 10-9평 40~43번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꿈에 행복하시지요.

㉠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얕은 소갈머리가 가엾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엾은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겐 또 한 가지 ⓐ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짓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꽁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꽁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 !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론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쌔게 꺼 없앴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켰을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 가막소 : 교도소.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 하는 전짓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43.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u>먼</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40.③ 41.③ 42.④ 43.③

◆ 05년 3월 고3 15~19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는 다시 가게 안쪽에 숨겨 놓은 비밀 집합사에서 새 새들을 꺼내다가 비워진 장들을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로선 물론 가게 안에 차려진 집합사에 새들이 몇 마리쯤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젊은이는 아마도 그 비밀 집합사에 새가 바닥이 나게 버려 두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특히나 오전 동안엔 젊은이가 바깥 새장을 비워 두는 일이란 절대로 없었다. 가게 안 비밀 집합사엔 언제나 여분의 새들이 얼마든지 비워진 장을 채우게 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젊은이가 비밀 집합사를 들어갔다 오면 두 마리고 세 마리고 그의 손아귀엔 언제나 그가 필요한 수만큼의 새들이 움켜져 나왔다.

이날도 젊은이는 벌써 스무 개 이상의 빈 새장을 새로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는 계속 다시 채워진 새장 앞에서 자신의 충동을 견뎌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 한 새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내가 무슨 버릇처럼 한 새장 문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자 장 속의 새가 포르륵 날개를 퍼득여 그의 손가락 쪽으로 날아와 붙었다.

사내가 손가락을 좀더 깊숙이 장 속으로 디밀었다. 그러자 다시 장 속의 새는 녀석의 조그만 부리로 사내의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한두 번 콕콕 쪼아대는 시늉이더니, 나중에는 겁도 없이 홀짝 그 손가락 위로 몸을 날려 내려앉았다. 그리고 꽁지를 가볍게 간들거리며 조그만 눈망울로 말똥말똥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내는 한동안 거의 넋을 잃은 듯한 얼굴로 장 속의 새 앞에 못박혀 서 있었다. 사내의 초라한 입가에 이윽고 누런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내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그래, 나도 이젠 네놈을 알아볼 수 있구말구……."

사내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리고 나서, 다시 가겟집 젊은이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오늘은 이 녀석을 사 주겠소."

그는 곧 야전잠바 주머니를 뒤져 동전 스무 닢을 세어 내놓고 나서, 이젠 젊은이의 응낙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새장 문을 따기 시작했다.

그는 열린 장문 사이로 손을 디밀어 녀석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싸안았다. 그리고 무슨 소중스런 물건이라도 다루듯 자신의 코 앞까지 녀석을 높이 치올려 들고는 사람에게 하듯이 중얼중얼 말했다.

"하지만 이젠 알아 두거라. 여긴 네놈들에게 그리 즐겨할 곳이 못된다는 걸 말이다. 그래 나도 이게 네놈한테 마지막일 테니 이번엔 좀 날개가 저리도록 멀찌감치 하늘을 날아가 보거라……."

손안에 든 새가 사내를 재촉하듯 날개를 두어 번 퍼득대고 있었다.

그러자 사내도 이제 그만 녀석을 놓아줄 자세를 취했다. 퍼득여 대는 녀석의 양 날개 밑으로 손끝을 집어넣어 녀석을 높이 받쳐 올렸다. 그리고 그가 뭔가 혼잣말 같은 것을 입속으로 중얼대며 녀석을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다.

사내는 금세 뭐가 이상해졌는지 숲으로 놓아주려던 녀석을 다시 가슴팍 밑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날개를 들추고 벌어진 날갯죽지 밑을 유심히 살폈다.

사내가 들춰낸 녀석의 양쪽 날개 밑엔 ㉠<u>무슨 가위 같은 물건으로 속깃을 잘라낸 자국</u>이 역력했다.

사내는 일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짐작이 안 가는 듯 멍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중략〉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멀어져 가는 ⓐ도시의 하늘에서 자신의 지친 발걸음을 재촉할 구실을 구하듯 때때로 고개를 뒤로 돌아보곤 하였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녀석을 떠나온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었을 게다. 게다가 이제부터 도시엔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거든. 너 같은 건 절대로 그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작자도 아마 그걸 알았을 게다. 글쎄, 네놈도 그 작자가 암말 못하고 멍청하게 날 바라보고만 있는 꼴을 봐 뒀겠지. 내가 네 놈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아, 그야 나도 물론 작자한테 그만한 값을 치르긴 했지만 말이다."

맞은편 산굽이께로부터 도시를 향해 길을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패가 사내의 곁을 시끌적하게 떠들고 지나갔다.

사내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행을 스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멀리 사라져 간 다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널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 돈 덕분인 줄이나 알아라. 하기야 그건 내가 정말로 집엘 닿는 날까지 기어코 안 쓰고 지니려던 거였지만……하지만 난 후회 않는다. 암 후회하지 않구말구. 그까짓 돈이야 몇 푼이나 된다구……이런 몰골을 하고 빈손으로 고향길을 찾기는 좀 뭣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구 어디 사람까지 변했나……아니, 내 아들녀석도 물론 그런 놈은 아니구."

사내는 제풀에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다.

가슴 속 녀석이 응답을 해 오듯 발가락을 몇 차례 꼼지락거렸다. 그 바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녀석의 발짓을 느끼고 있던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어쨌든 잘했지. 떠나온 건 잘했어."

사내는 다시 발길을 떼 옮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쎄, 이렇게 내가 제발로

녀석을 찾아 나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질 않았나 말이다."

그리고 사내는 뭔가 더욱 은밀하고 소중스런 자신만의 비밀을 즐기듯 몽롱스런 눈길로 중얼거림을 이어 갔다.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다. 남쪽은 북쪽하곤 훨씬 다르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넌 아마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그만일 테지. 내 너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녀석의 집 뒤꼍에도 그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구말구……넌 그럼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려무나……."

사내의 얼굴은 이제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1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내'와 '젊은이'라는 대립적 인물 간의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사내'와 '새'가 나누는 정감을 묘사하여 따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③ '사내'는 따듯하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④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사내'의 얼굴에는 행복이 담겨 있다.
⑤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내'의 혼잣말은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에 나타난 '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우화적(寓話的) 성격이 짙은 소설입니다. 우화란 어떤 일을 경계할 목적으로 비유적, 상징적 소재나 표현을 사용하여 만든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독자는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암시, 경계하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떨까요?

① 선주 : '새'가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야.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② 영기 : 이 글에서 '새'는 마음껏 날아갈 수 없게 된 존재로 그려져 있어. 그런 점에서 '새'는 구속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③ 재승 : '새'를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젊은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
④ 지인 : '새'와 '사내'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글에서 '새'는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⑤ 대현 : '새'는 숲에 있기도 하고 비밀 집합사에 갇혀 있기도 해. 이런 점에서 '새'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내'가 느꼈을 충격과 환멸을 짐작케 한다.
② '도시'라는 공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③ '사내'의 '기다림'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④ '가위'와 '속깃'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강한 인상을 준다.
⑤ '젊은이'가 만들어 놓은 '비밀 집합사'의 비밀이 폭로된다.

18. 밑줄 친 말이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깝게 쓰인 것은? [1점]

① A : 왜 이렇게 늦은 거야?
B : 눈이 오는 바람에 차가 막혀서 그만.
② A :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
B : 무슨 소리. 너와 함께 간다면 그만이지.
③ A : 어젯밤에 전화 안 받던데?
B :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자리에 쓰러졌지.
④ A : 너. 무슨 일이 있었어?
B : 아니. 그 녀석 생각만 하면 그만 눈물이 나.
⑤ A : 정말 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B : 그래?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지.

19. <보기>에서 ⓐ와 ⓑ가 함축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大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 김기림, 〈금붕어〉 중에서

	ⓐ	ⓑ
①	어항	책상
②	어항	바다
③	유리벽	책상
④	유리벽	거리
⑤	책상	거리

- 정답: 15.④ 16.⑤ 17.③ 18.② 19.②

◆ 22년 4월 고3 27~30번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번 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음으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만약 외무 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B]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素因)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중략)

나는 퇴원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 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강의 시간에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이었다.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져 버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황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다.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안이한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 앞에 전개된 것이다.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견고한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젊은 인턴을 삽입해 보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간호원의 눈을 피해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꿔** 버렸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다. 가을밤, 환자

복만을 입고 층계를 수십 번 오르내린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병실 앞에 걸려 있는 이름은 **해산일을 앞둔** 여인의 문패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인 것이다. 자, 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황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턴이 ㉡새로운 방황의 길로 떠나 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다음 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 여덟 시경. 나는 칫솔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달라진 낌새가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잰 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이 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서 끓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기를 쓰며 가까스로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틈엔가 **고등 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었다.

오전 아홉 시. 의사들은 동물원에서 갓 수입한 열대 동물처럼 떼를 지어 회진을 시작했다. 간밤에 수면을 잘 취했는지 그들은 더욱 정결해 보였다.

"오늘 퇴원이시죠?"

우두머리 의사가 가운에 손을 찌르며 여전히 사탕이라도 꺼내 줄 듯한 몸짓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퇴원하실 때 간호원에게 약을 받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윽고 젊은 인턴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뭐 잃으신 물건은 없는지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아, 예. 다행이군요. 어젯밤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핫하하."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중으로는 판명이 되겠지요. 저,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들이 제각기 무어라고 주의말을 주면서 사라져 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 최인호, 「견습 환자」 –

2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④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는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② '나'는 '그날 밤'에 몸이 지치도록 밤새 병동을 오가며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였다.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④ 우두머리 의사는 '오전 아홉 시'경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을 제안하였다.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피해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다.

29.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쥐가 반복적으로 ㉠에서 방황하는 것은 충분한 포식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② 젊은 인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③ 젊은 인턴이 미로에 빠졌다는 것은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쥐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부재한 미로이지만, 젊은 인턴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뚜렷한 미로이다.
⑤ 쥐는 익숙한 먹이를 위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을, 젊은 인턴은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장차 도달해야 할 ㉡을 선택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병원'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인물들은 기계적 일상에 매몰되어 감정이 제거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보여 주며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① '나'가 '문패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지게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군.
② '나'가 '미소를 결여'한 의사들이 '무표정한' '모델'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군.
③ '나'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이 '해산일을 앞둔'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인물의 역할이 치료의 대상으로 전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④ '나'가 떠올린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기계적인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⑤ '나'가 '사육된' '고등 동물'에 의해 '문패'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18년 3월 고2 38~41번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이 그립다는 것이지? 작자는 나로서는 생전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빙빙 돌아다니며 사는 놈인데 그리고 보니 작자의 저 광증에 가까운 생활 태도는 무전여행자의 그것 아니면 촌놈이 서울에 와 보니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해서 어쩔 줄을 몰라, 아니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서 괜히 심각한 체해 보았다가 시시하게 웃어 보았다가 술 사달라고 조르고 사랑이 어쩌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다. 고향이 그립다는 것이지? 그러나 고향이 그리운 것 같지도 않다. 작자의 고향에는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작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별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다. 나는 작자에게 보낸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처럼 다정하고 착하고 그리고 내가 그 편지 속에서 받은 느낌을 상상해 보건대 그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어머니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성모 마리아의 하얀 석상을 볼 때 받는 느낌 같았다고나 할까, 요컨대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인 것이다.

'아들아, 먼 곳에 너를 보내 놓고 마음 한시도 놓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께 기도 드리면 내 아들이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심신 평안하다 하여 지난 주일부터는 읍내에 있는 성당에 다니기로 하였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

내가 읽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 한 구절이다.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작자는, 우리 마을에서 성당이 있는 읍내까지는 꼬박 30리 길인데… 왕복 60리, … 미친 짓하고 계셔, 라고 투덜대더니 괜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편지를 돌려주자 북북 찢어서 팽개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처럼 착한 어머니께 '미친'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야말로 미친 바보, 멍텅구리, 촌놈, 얼치기, 치한.

(나)

[A]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었다. 우리는 누이가 지니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았다. 그러나 헌 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걸로써는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 준 이 년의 내용을 측량해 볼 길이 없었다. 누이의 침묵은 무엇엔가의 항거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항거였을까, 도시를 향한 항거였을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툴렀다는 것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 왔단 말인가?

반대로, 도시를 향한 항거라면 — 아마 틀림없이 이것인 모양이었는데 — 그렇다면 누이의 저 향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u>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u>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쓰는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마 누이가 도시에서 묻혀온 고독이 병균처럼 우리 자신들조차 침식시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u>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u>,

요컨대 우리가 만족해 있던 것을 그 반대로 치환시켜 버리는 세계였던 것인가. 누이는 적어도 우리가 보낼 때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런데 침묵의 훈련만을 받고 돌아오다니.

어제 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결국 곤란을 겪었던가, 무엇이 재미있었던가, 남자를 사귀었던가, 그렇다면 어떤 남자였던가, 고 얘기해 주기를 간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짐작컨대 누이의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누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유 등잔불의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다. ⓓ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누이는 말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었다. 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새삼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하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다음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것이다.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 가는 이 시각에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이 년 동안을 씻어 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선생님의 설명]

(가)와 (나)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장들의 일부로, 각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가)의 '나'는, 고향에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서울로 와 살고 있는 '작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 (나)의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2년간 살다 귀향한 '누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가)와 (나)는 '작자'와 '누이', 즉 고향을 떠나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인물을 다룸으로써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와 (나)는 독립된 장으로 서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단일 제목 하에서 통합된 의미를 구현하게 되지요. 이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가)에서 '나'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작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나'는 '작자'를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작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작자'의 어머니를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로 표현하여 '작자'와 그 어머니에 대해 대조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작자'가 어머니의 편지를 찢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어머니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감동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④ (나)에서 '나'는 '누이'의 '울음'을,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희생자들'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⑤ (나)에서 '누이'를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누이'가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고 과거와 같은 존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선생님의 설명]'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이'가 가져온 '작은 보따리'의 가치
②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경험의 성격
③ '누이'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계기
④ '나'와 '어머니'가 '누이'를 도시로 보낸 까닭
⑤ '어머니'가 '누이'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4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독백적 질문이 반복되며 내적인 탐색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② 공간적 배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③ 계절적 이미지를 묘사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④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41. ⓐ ~ ⓔ와 관련하여 (나)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를 도시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나'는 도시를 ⓑ로 보고 자신의 고향과는 이질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어머니'는 ⓒ를 통해 '누이'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나'는 ⓓ의 발화에 이어지는 '울음'에 '누이'의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고향의 속성들을 ⓔ와 같이 열거하며 도시의 허영적 속성을 일깨우고 있다.

- 정답: 38.③ 39.② 40.① 41.⑤

◆ 05년 7월 고3 52~56번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 꽃이 피기에 알맞은 보슬비도 화산댁(華山宅)이에게는 사뭇 쌀쌀하고도 차기만 했다.

복술이는 이제 마악 바로 이 집이라고 분명 가르쳐 줬다. 그런데도 화산댁이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망설이기만 했다.

아니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 봐도 자기 아들이 살고 있을 여염 살림집은 아니었다.

사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 되나 마련해서 두메서 십 리 밖, 경주가도(慶州街道) S장—(장이래야 ⓐ뜨내기 보따리 장사가 몇몇 모여드는)에 갖다 대는 것이 고작인 화산댁이로서는 높직이 쌓아 올린 블록 담이라든지, 페인트 칠한 판자문이라든지 또 그 안에 번쩍거리는 유리창문들— 이 모두가 무슨 관청— 일테면 촌에서 보는 면사무소나, 지서 같기만 했다.

—앙이지거리, 앙이고 말고 택도 없다— 화산댁이는 이렇게 중얼대면서 골목 밖을 내다 보고 눈으로 복술이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고 서둘던 복술이가 여태껏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중략)

화산댁이는 사 년 동안을 보지 못한 막내며느리의 모습을 그렸다. 이러려니,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동안, 화산댁이의 망막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영상이 뿌리 깊이 박혔다. 그것은 언젠가 산소를 다녀간 김 의관네 맏며느리 바로 그대로였다. 일테면 곱다랗게 낭자를 하고, 쑥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다. 옥양목 버선을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달아 신고…… 그리고 한 됫베기[핸드백]를 살포시 꼈다—. (두메 사람들이 핸드백을 안 것은 김 의관네 며느리를 위시해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보이소 새댁이요, 혹시 돌이[石]라는 사람 모르겠능교?"

돌이란 막내아들의 아명이었다. 문패에는 박석근(朴石根)이라고 씌였다.

"모르겠소, 그런 사람!"

유독 '겠소'에 힘을 넣은 앙칼진 소리다. ㉠화산댁이는 비로소 맘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는 잠겨지지 않는 문을 새댁이가 연신 덜커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댁이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댁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델 어떻게 간달 수도 없다.

"돌이고 쇠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소!"

그리고는 연신 힐끗힐끗 화산댁이를 쏘아보면서 새댁이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기야 요즘 부쩍 는 무슨 방물장수니, ⓑ동냥아치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새댁이는 골목 밖에서 큰길로 꺾이면서 또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화산댁이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꼬라지갑세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베. 아니꼬운 것……."

참말이지 두메서는 들일이 한창인 무렵이면 개나 닭들만이 남고 방문조차 열린 채 마을은 껍질처럼 빈다. 그래도 도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화산댁이는 ⓒ귀때기 새파란 젊은것의 하는 짓이 정말 아니꼽고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괘씸한 것은 복술이었다. 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남의 집을 대 주고 가 버렸으니 화산댁이는 그야말로 저문 날 길 덧든 나그네였다.

화산댁이는 큰길에 나가 보기로 했다. 도둑 혐의도 아니꼬왔지만 행여 아들을 만날까도 싶었다. 그새 아들이 지나가지나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화산댁이는 또 가슴이 덜컥했다. 주척주척 걸어나갔다. 그러나 채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 복판에 발이 붙어 버렸다.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추씨 눈을 수 없이 깜박거리면서 보고 보았으나 분명 아들이었다. 화산댁이는 그만 목이 꽉 메었다. 말보담 눈물이 앞섰다. 그새 아들은 화산댁이를 비켜 서너 걸음이나 지났다. 화산댁이는 그제서야

"야야!"

아들은 힐끗이 돌아만 보고는 또 걸었다. 모르는 모양이었다.

"내다, 야야!"

화산댁이는 비로소 뒤집어 쓴 치마를 훌쩍 걷어 내렸다. 아들은 눈부터 뚱그래졌다. 화산댁이는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아들은 완연히 당황해 했다. 길 아래위를 살피면서

"어짠 일인기요?"

화산댁이는 애원이나 하듯 목멘 소리로

"보고 싶어 왔다!"

아들은 잠깐 동안 뭣을 망설이고 나서

"들어갑시더!"

그리고는 앞을 서서 바로 아깟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중략)

"묵어 바라, 꿀밤[도토리] 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딴딴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얘[아들]가 하도 질긴다 싶어 해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했을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페페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뭣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쯧쯧— 돌아눕는다. 건넛방에서는 아직도 소곤소곤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거[자기들] 좋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댓잎처럼 긁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 ⓓ아랫도리를 벗은 손자들이 제멋대로 자고, 쑥물 사발을 옆에 놓고 짚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질 것만 같았다. 또 뒤쳐 눕는다.

– 오영수, '화산댁(華山宅)이'

52. 위 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독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雨]'가 내리는 배경의 설정은 어머니가 곧 당면하게 될 난처한 처지를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② 높은 담벽을 가진 집과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③ 남편의 아명을 알면서도 노인 앞에서 모른 척한 새댁의 행동을 통해 도시인의 비정함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닐까?
④ 손녀가 꿀밤 떡을 먹지 않고 할머니 앞에서 뱉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설정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일까?
⑤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갯길을 넘고 있는 화산댁이의 상상은 주제 형상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

53. ㉠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화산댁이'의 생각의 흐름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낯설지만 아들네 집인 것으로 추측함 → 문패를 보고 제대로 집을 찾아왔다며 안도함
② 집이 너무도 낯설어서 불안해 함 → 이 집이 아들네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감을 느낌
③ 핸드백을 들었던 며느리의 예전 모습을 회상함 → 아들은 며느리 덕분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행복해 함
④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해 부끄러워 함 → 며느리도 느꼈을 부끄러움을 자신이 먼저 면하게 해줘 다행이라 여김
⑤ 난처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 생각함 → 새댁이 자신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54. <보기>를 참고하여 '화산댁이'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 유형에 관해 탐구해 본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오영수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 <요람기(搖籃記)>의 '**소년**'은 산간 마을에 살면서 토속적인 생활을 즐기며 꿈과 소망을 키워 나가는 인물이다.
○ <메아리>의 젊은 '**동욱 내외**'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맛본 뒤 산으로 들어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 <후조(候鳥)>의 순박한 '**구칠**'이는 마치 후조[철새]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생활 터전을 떠돌아다니는 인물이다.
○ <갯마을>의 '**해순**'은 '상수'와 재혼을 하여 깊은 산골에 들어가 콩밭을 매면서도 늘 자신이 살았던 갯마을을 그리워한다.
○ <박학도(朴學道)>의 '**학도**'는 순박한 인물로서 거친 세파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다.

① '화산댁이'는 토속적인 삶을 편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소년'과 유사하다.
② '화산댁이'는 도시적 공간을 거북스럽게 느낀다는 점에서 '동욱 내외'와 유사하다.
③ '화산댁이'는 기껏 아들집에 찾아왔다가 금방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구칠'이와 유사하다.
④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누워서도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해순'과 유사하다.
⑤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왔다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아들 내외를 탓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도'와 유사하다.

55. 위 글과 <보기>에 각각 나타나는 '아들'의 태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깎아 떠 보였었다.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나의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청준, '눈길'

	위 글	<보기>
①	어머니가 보여 주는 정을 외면해 버리는 아들	어머니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아들
②	어머니를 소외시켜 떠나게 하려는 아들	어머니를 원망하고 곁을 떠나가려는 아들
③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아들
④	어머니와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고민하는 아들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들
⑤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자책하는 아들

56.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어휘 학습을 진행하였다. ( ) 안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1점]

1단계 (확인하기)	'무르팍'은 '무릎(어근) + -악(접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함
↓	
2단계 (뜻 찾기)	'무르팍'은 '무릎'을 속되게 이르는 말임을 앎
↓	
3단계 (예 찾기)	어근 뒤에 붙어서 앞말을 속되게 이르는 뜻이 더해진 단어의 예에는 '가슴팍', '( )' 등이 있음을 앎

① ⓐ : 뜨내기 ② ⓑ : 동냥아치 ③ ⓒ : 귀때기
④ ⓓ : 아랫도리 ⑤ ⓔ : 누더기

- 정답: 52.③ 53.② 54.③ 55.① 56.③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댁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끄러미 화산댁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댁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헌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댁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훔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댁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려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댁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댁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퉁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꾀죄죄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퉁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퉁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페페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뭣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쯧쯧.' 돌아눕는다. ㉡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먼*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A]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댓잎처럼 긁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쑥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눕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깔레* 메누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뙈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댁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댕기더니.'

화산댁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샐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댁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댁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훤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댁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샜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댁이」 -

* 저거 조먼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하리깔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적산집 :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5. '화산댁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②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6.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화산댁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① 짚세기 : 고무신
② 초가집 : 적산집
③ 토벽 : 횟가루 벽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⑤ 수채 : 뒷간

- 정답: 25.④ 26.⑤ 27.③ 28.⑤

◆ 04년 10월 고3 24~29번

[24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궁벽하게 사노라니 사람 보기 드물고 窮居罕人事
항상 의관도 걸치지 않고 있네. 恒日廢衣冠
낡은 집엔 향랑각시 떨어져 기어가고, 敗屋香娘墜
황폐한 들판엔 팥꽃이 남아 있네. 荒畦腐婢殘
병 많으니 따라서 잠마저 적어지고, 睡因多病減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 보네. 秋賴著書寬
비 오래 온다 해서 어찌 괴로워만 할 것인가. 久雨何須苦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을. 晴時也自歎

— 정약용, <구우(久雨)>

(나)

무거운 쇠사슬 끄으는 소리 내 맘의 뒤를 따르고
㉠ 여기 쓸쓸한 자유(自由)는 곁에 있으나
풋풋이 흰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墓) 속에 살고 있느냐.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山)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로 나려 비애(悲哀)를 적시울 듯
도형수(徒刑囚) 발은 무겁다.

— 오장환, <소야(小夜)의 노래>

(다)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
Ⓐ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② (가)와 (다)는 대립적 가치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준다.
④ (가)~(다)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가)~(다)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암시하고 있다.

25. <보기>의 설명과 요건에 따라 (가)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패러디의 의미 : 패러디는 기존 작품의 형식이나 특정한 문제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주제나 내용을 창출하는 문학 양식이다.
○ 창작 요건
ㄱ. (가)의 표현을 두 행 이상 모방할 것.
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것.

① 못 살고 떠나온 고향에 돌아오니
원 세상에,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아버지는 한평생 고춧잎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② 궁핍하게 사노라니 사람 도리 하기 힘들고
항상 남의 눈을 피해 다니며 산다네.
나도 남들처럼 배가 불러야 행복해지니
어찌 배부를 일을 외면할 수 있으리오.
③ 낡은 집들엔 벽 틈으로 거미가 기어다니고
황량한 놀이터엔 쓰레기만 쌓여 있네.
길 건너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에겐
이곳이 너무 낮아서 영 보이질 않네.
④ 낡은 지붕엔 기왓장이 떨어져 비가 새고
갈라진 벽에는 발라놓은 종이들이 너덜거리네.
비 오래 온다 해서 어찌 괴로워만 할 것인가.
날 맑으면 젖은 손발이 모두 마르게 될 것을.
⑤ 갈라져 버린 농토에 말라버린 곡식들
알맹이 없는 추수를 기다리며 한숨짓는데
어느덧 찾아온 빚줄기는 장마가 되어
하늘만 쳐다보던 농민들의 눈시울을 적시네.

26. (다)의 Ⓐ에 대한 <보기>의 해석을 고려할 때, (가)의 화자가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 보 기 〉

시인은 물고기에게 시를 선물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시가 모든 존재의 영혼인 까닭이다.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 즉 물화된 인간도 그 자신 이미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는 까닭에 영혼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유적으로 시가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이다.

① 시가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찌 만족할 수 있겠소.

② 황폐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도입니다.
③ 시로 존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④ 사람들은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⑤ 사람들의 본성이 달라진 것은 환경 때문이니, 시를 주기 전에 우선 환경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27. 다음은 수업 시간에 (나)에 대해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지배적 심상	냉혹함 - '흰눈, 차디찬, 파랗게 얼어' 등의 시어에서 확인	… ①
시어의 의미	'더러운 발자국' - 화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	… ②
	'어메'의 '묘' - 잃어버린 모성의 상징	… ③
	'도형수' - 화자가 질곡(桎梏)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	… ④
주제 의식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는 행위에 암시됨.	… ⑤

28. 교내 축제에서 (다)를 원작으로 한 무용을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무질서하게 춤을 추도록 합시다.
②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길거리가 느껴지도록 세트를 구성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합시다.
③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유리벽에 부딪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면 원작의 내용이 잘 표현될 거예요.
④ 무대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하되, 더운 느낌을 주는 조명을 사용하면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⑤ 처음에는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고, 마지막에는 검은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면 주제가 부각될 거예요.

29. 화자의 정서 및 처지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② 문(門)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생활(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밤이사나운꾸지람으로나를졸른다.나는우리집내문패(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나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자꾸만감(減)해간다.
③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④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⑤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 정답: 24.② 25.③ 26.① 27.⑤ 28.⑤ 29.①

◆ 13년 11월 고2 B형 41~43번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나)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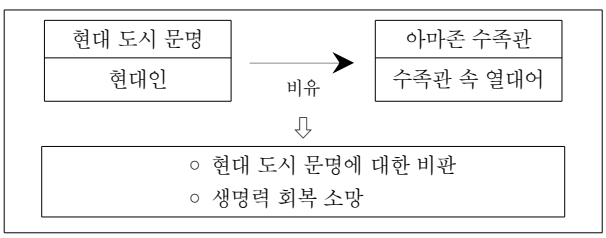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물질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① '낙엽'과 '포푸라나무'는 근경, '급행 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②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43.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41.③ 42.② 43.③